



3면
4인가구 건보료 23만7천원 이하
재단지원금 최대 100만원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0년 4월 6일 월요일 (음 3월 14일) 제251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 마무리

전북도, 11일만에 초고속 집행... 1만3406곳 70만원씩 현금 지급

전북도가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행정명령대상 시설 긴급지원금 지급을 마침 결정 11일 만에 마무리했다.

지난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도내 행정 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을 신청한 시설 1만3406곳에 70만원씩 현금 지급을 완료했다.

시군별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 지급 시설은 ▲전주 5,760곳 ▲군산 1,813곳 ▲익산 1,901곳 ▲정읍 708곳 ▲남원 618곳 ▲김제 507곳 ▲완주 598곳 ▲진안 159곳 ▲무주 153곳 ▲장수 131곳 ▲임실 160곳 ▲순창 161곳 ▲고창 343곳 ▲부안 334곳 등이다.

도는 각 시군에 이날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긴급지원금 93억8420만원의 교부를 완료한데 이어, 시군도 이날 해당 시설로의 지급을 마쳤다. 또한, 전북도 뿐만 아니라 도내 시군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추가 긴급지원에 나서 3일 현재 긴급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시군은 군산, 익산, 남원, 완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등 8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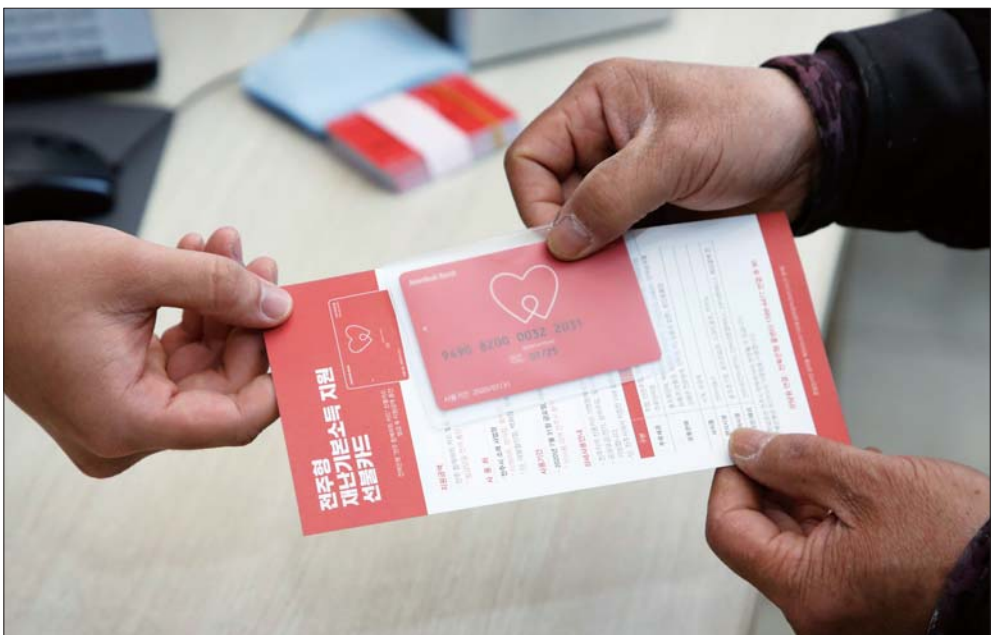
군산시는 요가, 필라테스, 탁구장 등 450곳에 모두 3억1500만원, 익산시는 당구장, 볼링장, 스크린골프장, 낚시방 등 168곳에 1억1700만원, 남원시와 완주군은 각각 18곳, 27곳에 추가지원을 결정했다.

장수군은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18개소에 1260만원, 임실군은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8곳에 560만원, 순창군은 에어로빅, 당구장 등 13곳에 900만원, 고창군은 당구장, 에어로빅 등 47개소에 3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긴급지원금의 지급이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도민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민 제보로 익산 소재 신천지 관련 법인 사무실을 추가로 확인해 3일 시설폐쇄 및 집회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도내 신천지 시설은 총 93개로 늘었다.

/김진성 기자



전주시는 지난 3일 전북은행 본점에서 긴급 생활안정을 위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대상자로 확정된 533명에게 선불카드인 '전주 함께하트 카드'를 지급했다.

당신 곁에 '전주 함께하트 카드' 발급 시작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대상 533명 혜택... 24일까지 접수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긴급하게 도와주는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선불카드 발급을 시작했다.

시는 지난 3일 전북은행 본점에서 긴급 생활안정을 위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대상자로 확정된 533명에게 선불카드인 '전주 함께하트 카드'를 지급했다. 이는 총 263억 여원의 돈이 지역 내에 풀리기 시작하는 것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취약계층의 위기 극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기대된다.

이날 발급이 시작된 '전주 함께하트 카드'는 지난 27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재난기본소득 신청자에 대한 선정 작업을 통해 1순위 대상에 확정된 시민들에게 지급됐다.

시는 앞서 지급 대상자들에게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전주 함께하트 카드'는 지급 첫 날인 지난 3일에만 전북은행 본점에서 발급하며, 오늘부터는 전주지역 모든 전북은행 지점에서 수령할 수 있다. 또 4월 중에는 토요일(11일, 18일, 25일)에도 전북은행 본점에서 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카드 수령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과 핸드폰 문자메시지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

별도의 통장 없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는 수령 즉시, 전주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다.

단, 대중교통(후불교통기능), 유증업소·골프장·백화점·대형마트 이용과 귀속속 구입, 온라인 결제 등의 사용은 제한된다.

사용만료일이 지난 후에는 잔액이 전주시로 일괄 귀속된다. 시는 '전주 함께하트 카드'의 원활한 발급과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은 전북은행을 통해 카드 사용자들에게 발급 안내부터 사용을 독려하고 잔액과 만료기간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2일 현재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가 총 1만4101건에 달한다.

항우 시는 대상자 선정 작업에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선정 즉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누군가 힘들 때 '당신 곁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사회적 연대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김승구 김양원 최명규

기획조정실장 강승구
도민안전실장 김양원
전주부시장 최명규

전북도 실장급 인사 단행

전북도가 지난 3일, 6일자 실장급(2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임상규 전 기획조정실장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강승구(기술고시 20회)도민안전실장을 기획조정실장에, 김양원 전주부시장(행시 35회)을 도민안전실장으로 전보했다.

전주시에는 최명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부장(행시 37회)이 부임한다.

전주출신인 강승구 실장은 신홍고와 고려대를 졸업한 이후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공공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1985년 공직에 입문했으며 이후 전북도 농수산식품국장, 군산시 부시장, 도 대외소통국장, 농수산식품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양원 실장은 부안출신으로 전주 영성고와 고려대를 졸업하고, 1993년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전북도 투자유치국장, 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치행정국장 등을 지냈다.

최명규 전주 부시장은 전주출신으로 완산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85년 공직생활을 시작한 그는 행안부 국가기반보호과장, 특수재난지원관, 국민안전처 복구총괄과장 등을 거쳤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자가격리 위반 임실거주 20대 첫 고발

격리조치 거부 등 엄정 대처

전북도는 격리자 이탈 방지를 위하여 해외입국자 이송체계를 공항버스로 단일화하는 등 지역사회 전과 차단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임실군 A씨를 대상으로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지난 3일 고발 조치했다.

임실군에 거주 중인 A씨는 지난 2일 오전 9시 30분 경 본인 차량 인수를 위해 점용시 신대인용 소재지 1개 장소를 방문했으며, 지인 1명 외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확진자와 지난 29일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었으며 A씨는 30일 전북도로 이관됐다. 29일 진단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밝혀졌다.

도는 격리장소 무단이탈, 격리조치 거부 등 위반 행위를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해 엄정히 대처할 것을 밝혔다.

또한, 5일부터는 처벌이 한층 강화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에 따라 철저한 격리자 관리 계획을 밝혔다.

전북도는 격리자의 이탈 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이탈 의심자에 대한 주민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기존 유선연락과 함께 활용하여 격리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와 각 시·군에 '자가격리 이탈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이탈 신고 접수 병행하여 격리자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자가격리자 이탈 시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되므로 자가격리자는 격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호소하며, "전북도에서도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하여 자가격리자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임실=진홍영 기자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이렇게 신청하세요!

Infographic for Jeonju-type Disaster Basic Income. It includes application details (deadline 2020.4.24), eligibility criteria (age, income, employment status), and application methods (online, phone, in-person). It also lists various support programs like health insurance, job training, and financial aid.